

# 깨어진 언약

신학박사 조 덕운

창세기 3:15 [흠정역]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 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 하신 처음 기록된 말씀으로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 즉 하와의 자손으로 한 남자가 나올 것이며, 사탄은 그 씨(자손)와 적대 관계를 가지고 그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는 사탄의 시도하는 바를 분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씨는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메시아의 원수가 될 사탄 모두에게 장래에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언약으로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사탄을 미워하여 사탄이 기도하는 인간 파괴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시는 분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적대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 선언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범죄 행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가, 그 결과로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살펴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알아봄으로써 이 언약 파기 사건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 1. 언약을 파기한 하와와 아담

창조의 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지근에서 모시던 천사 중의 하나이었던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를 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설득하여 같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동기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아담을 질투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릇치게 하려는 악한 동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최초 인간 부부의 범죄는 많은 사람에게는 죄로 느껴지지 않을만한 것, 단순히 특정한 과실을 먹은 잘못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커다란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직도 사망 아래에 살게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 파기 행위를 어떻게 보셨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 언약의 조건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과 지구 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하시며 모든 과실들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2:8-9]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9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15-17]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중에서 생명나무는 가장 귀한 나무로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금기의 나무이었습니다. 영생과 죽음은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축복과 저주의 양극을 상징하는 구체적 선택 옵션으로서 인간 앞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의적 선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훌륭한 축복의 열매들, 특히 영생을 즐기도록 축복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함정’이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잘못 주장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그분이 마련하신 모든 축복을 즐길 특권을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서클 밖으로 나가느냐의 선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택의 나무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즐기고 있었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방탕한 독립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주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용하여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 나. 사탄의 설득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

뱀의 형태를 갖춘 사탄은 먼저 하와를 공략하였습니다. 사실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못했고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그들이 함께 있었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와가 남편을 떠나 홀로 뱀과 대화하였고 그에게 설득당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상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먹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그 과실을 따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이를 먹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이 과일을 주면서 같이 먹도록 설득하여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던냐? 하니 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3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6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러한 하와의 어리석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부부 간에 있어야 할 질서에 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의 질서가 아니라, 부부가 일심 동체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선다면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2-14]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14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 다. 사탄의 전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용한 유혹의 전술 두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짓 논리를 단호하게 하와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거짓 신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무오성과 진리됨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인간의 논리, 거짓된 진화론적 논리, 그럴듯한 과학적 이론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부추겼습니다. 사탄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거짓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의 영혼들이 참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거짓된 종교들인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동방 명상법 등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불(成佛)이 바로 그런 개념이고, 요즈음 젊은이들 중에 유행하는 뉴에이지 종교야말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하와에게 사용했던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성경과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적, 영적 능력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지혜를 발견하여 많은 문명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설파합니다. 지난 수세기의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세로 과학적 탐구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물에 부여하신 자연적 법칙들을 발견하여 인류 문명에 기여하였습니다.

*[시편 111: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는 지식은 무신론자이었던 다윈의 진화론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옳지 못한 헛된 이론을 믿게 하는 지식을 생산합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과학적 이성론은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찬 소위 지식층은 좌파 사회주의 논리로 서구 여러 나라들과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독재 공산주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바탕을 둔 참 지식인들과 인간적 논리와 잘못된 과학 이론에 물든 거짓 지식인들이 충돌하는 격돌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충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발된 것입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하는 잘못된 지식임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신 하나님의 조치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항의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Holiness)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며 그러한 사랑과 자비는 아직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 거룩, 거룩”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구절은 두군데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 사랑, 사랑” 또는 “자비, 자비, 자비”로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이사야 6:3]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8]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 전능하시며 스스로 거룩히 존재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매우 훌륭한 특권, 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살 특권,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온전한 축복 안에 영원히 거할 특권을 자의적인 어리석은 선택으로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무자비한 조치가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자의적 불순종,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결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불행한 사건 이후로 사망의 굴레를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며, 에덴 밖에서 태어나 살면서 에덴을 향해 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조치 – 메시아를 보낼 약속

혹자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오해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 할 방도로서 메시아가 오도록 계획하게 되었다고 얘기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고, 따라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논리를 펴므로써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인간 구원의 계획, 즉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갈 것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희생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미리 수립하셨다고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1:4-7]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5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지금부터 약 2 천년 전에 갈보리 언덕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보혈의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린양 예수님께서 창세 때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여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이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음을 이야기 합니다.

*[요한계시록 13: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희생에서 온 옷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입히셔서 그들이 에덴 밖에서 살 때에 보호가 되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희생에 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과 은혜에 들어올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동물 제사에 관해 가르쳤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부모로부터 배운 동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35]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메시아를 보낼 계획은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세워졌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 또 하나의 의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 공부를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 3. 교훈과 권면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히 창조하셨는가, 어떠한 특별한 소명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 죄악에 빠진 경위, 그렇게 유도한 사탄의 전술이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리석게 파기한 인간을 에덴에서 축출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에덴으로 돌아오게 할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에덴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오늘도 향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권면합니다. 아멘.